

외국인 쓸어담을 때 개인투자자 손 털었다… ‘ETF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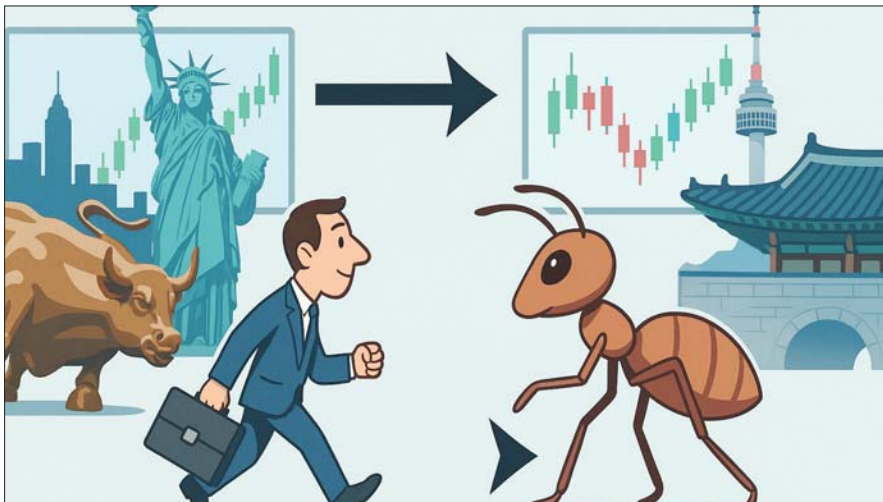
개미, 3개월간 증시 2배 하락 베풀 ETF 6062억 매수… 손실률 26%

美·英 시장서 총 2047억 弗 유입
방산 중심 5주 연속 패시브 자금
외국인-개인 수익률 6배 벌어져

국내 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동안,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선 반면, 개미들은 오히려 하락을 점치는 모습이다. 수익률 격차도 6배까지 벌어지면서 개미의 투심이 반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2배 하락에 베풀며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를 6062억원 순매수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코스피는 12.69% 급등하며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고, 손실률은 25.71%를 기록했다.

해당 ETF는 동일 기간 개인투자자가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상품이다. 가



ChatGPT로 생성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엇갈린 투자심리’ 관련 이미지.

장 많이 ETF는 ‘TIGER 미국S&P500’으로 6975억원을 사들였다.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의 최근 3개월 간 ETF 순매수 상위 10위권에 국내 증시 관련 ETF는 인버스 상품을 포함해 단 2개뿐이다. 나머지는 미국 증시, 금, 머니마켓 형에 집중했다.

반면, 해외 상장 ETF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내 ETF 시장은 휴장으로 자금

유입이 없었지만, 미국 ETF 시장에는 1239억달러, 영국 시장에서는 808억달러가 유입됐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와 ‘VanEck Defense’ ETF 등 방산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며 “해외 ETF 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은 5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미국 ETF 시장에서 MS

CI 신흥국, MSCI 한국 지수 ETF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총 3조2000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ETF 시장에서는 MSCI 신흥국 지수와 방산 ETF를 중심으로 9000억원이 들어왔다.

이는 올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주식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주요 지수의 한국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52.42% 뛰었고, 올해 2월 10%를 하회했던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도 9월 말 11.0%까지 상승했다. 전날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한국을 신흥시장 투자의 핵심 국가로 평가하며, 신흥시장 랠리를 주도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개미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월 연속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10조6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4조2000억원을 털었다.

다만 개미의 국내 증시 불신이 회복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가 약 6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일 기간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비교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모든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개미들이 선택한 종목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대형 반도체주를 즐겼다. 삼성전자(6조6406억원), SK하이닉스(1조2439억원), 삼성전자(8803억원)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으며, 두산에너빌리티(6171억원)와 삼성전기(5002억원)도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0.62%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한화오션(7152억원), 알테오젠(7145억원), 네이버(5343억원), SK텔레콤(3646억원), 삼성SDI(3595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다만 한화오션과 알테오젠, SK텔레콤 등은 불장에서도 평균 4.80% 하락했다. 이외 2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도 9.62%에 그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HD현대마린·에이피알 MSCI 편입 유력

시총 4조 오리온은 편출 가능성
11월 정기리뷰 결과 내달 6일 발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11월 정기 리뷰를 앞두고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의 지수 신규 편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도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보고서를 통해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전부터 편입 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해온 상태이며, 편입 시 수급 영향 규모는 약

128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에이피알 역시 MSCI 미포함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높다”며 “현재 시총이 편입 기준치(9조3000억 원)보다 약간 낮은 9조2000억 원 수준이지만, 오리온이 시총 부족으로 편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체 편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에이피알의 편입 시 예상 수급 규모는 약 21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오리온은 현 시가총액이 4조 원으로, 편입 유지 최소 조건인 4조2000억 원에 못 미쳐 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 연구원은 “오리온 이후로 시총이 낮은 LG생활건강(4조6000억원)과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4조9000억원)는 기준선을 상회해 편출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번 MSCI 11월 정기 리뷰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내달 6일 발표된다. 다만 미국 추수감사절 일정으로 인해 편출입 종목의 주가 기준일은 이달 14일부터 27일 사이로 평시보다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로빈 그루(Robyn Grew) MAN그룹 CEO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나 글로벌 금융상품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투증권, 만 그룹과 금융상품 등 협력 확대

국내 맞춤형 상품전략 등 논의

한국투자증권은 15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만(MAN) 그룹과 국내에서 글로벌 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한국을 찾은 로빈 그루 MAN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을 만나 국내-글로벌 투자 시장 전망, 국내 투자자 맞춤형 상품 전략, 신규 공동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크레딧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MAN 그룹과 협업해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출시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상품 라인업을 지속 강화해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가치 중심의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美 반도체 지수 3배 추종 ‘SOXL’ 1600억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하락장은 기회’ 패턴 재현
ETHU 420억, MSTU 350억 순매수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로 요동치자 국내 투자자들이 오히려 ‘저가매수’에 나섰다. 반도체와 가상자산 관련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순매수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하락장은 곧 기회’라는 서학개미의 특유의 투자 패턴이 재현됐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13~14일 이틀간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S ETF(SOXL)’를 1억 3290만달러 매수, 2052만달러 매도하며

총 1억1237만달러(약 1600억원)를 순매수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미국 반도체 업황에 베풀리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더리움 선물 일일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VOLATILITY SHARES TRUST 2X ETHER ETF(ETHU)’도 2931만달러(약 420억원) 순매수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의 일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T-Rex 2X Long MSTR Daily Target ETF(MSTU)’가 2439만달러(약 350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 1439만달러 ▲Joby

Aviation(조비에비에이션) 1313만달러 ▲NVIDIA(엔비디아) 1191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DIREXION DAILY MSCI SOUTH KOREA BULL 3X ETF(KORU)’가 1091만달러(약 156억원) 순매수로 10위권에 포함되며, 한국 증시에 대한 간접·레버리지 투자 수요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나친 공포국면에 진입하진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락이 장기화되고 상승 추세가 꺾일 요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은 인공지능(AI) 관련 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상승 추세가 결정되고 있는데 무역 분쟁으로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 프리미어 마이PB 멤버스’ AUM 1조

PB서비스 디지털 환경 맞춰 재구성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Premier MyPB 멤버스’의 총 관리자산(AUM)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오프라인 중심이던 기존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혁신적으로 재구성했다.

디지털·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고

객도 전담 PB를 통해 전문적인 투자상담과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투자 상담 외에도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 등 다양한 전문 콘텐츠와 프리미엄 혜택을 함께 제공해, 고객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하은 기자